

# 6년새 매출 10배... 신안 태평염전 6차산업 선도

〈생산+유통+체험관광〉

광물서 식품 전환 이후  
박물관·힐링센터 개장  
작년만 관광객 8만여명

140만평으로, 단일 염전으로는 국내 최대인 태평염전은 연간 1만7000t의 천일염을 생산해 국내 생산량의 6%를 점유하고 있다. 태평염전은 단순 생산에 머물던 천일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2005년 가공업체인(주)태평소금을 설립해 120여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010년에는 유통과 생태관광을 맡는(주)섬들체를 설립,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천일염의 융복합으로 6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 그 결과 2005년 20억원이던 매출액이 2011년에는 200억원으로 10배 가

량 폭증하는 성과를 이뤘다. 1·2·3차 유통과 생태관광을 거쳐 6차 산업으로 발전한 결과로 매출액 비중도 염전 생산에서 67억원, 가공에서 100억원, 유통 및 관광에서 30억원으로 안받았다.

특히 2007년 소금박물관 개관을 시

작으로 염전체험장, 염생식물원, 힐링센터 및 힐링캠핑장을 잇따라 운영하고 천일염의 미각을 체험할 수 있는 '솔트 레스토랑'이 문을 열면서 천일염을 3차 서비스산업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차 산업 효과는 수치로도 확인돼 지난해 증도를 방문한 80만명의 관광객 가운데 8만3000여명이 태평염전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겼다.

태평염전측은 60주년을 맞아 서울에 천일염 전문 식당을 열고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해 '8년산 천일염'을 출시하는 등 본격적인 6차 산업 마케팅을 벌일 계획이다.

손일선 회장(49)은 "솔로시티 지정,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탐사르협약 가입 등 증도가 이른바 '생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것을 계기로 신안산 천일염의 세계적 명품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9일 태평염전을 방문한 박준영 전남지사는 "중도 학교 등지에 소금과 갯벌 박물관 숙박시설을 지어 수도권 아토피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도 6차 산업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9일 태평염전을 찾은 박준영 전남지사(왼쪽 두번째)가 천일염의 색깔과 맛을 점검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유치원생들이 10일 전남도청 날씨공원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전남도청 부지에 날씨공원

전국 지자체 최초...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

전남도가 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전국 최초로 도청 부지에 자동기상관측장비(AWS)를 갖춘 날씨공원을 열었다.

전남도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난에 한 발 앞서 대비하기 위해 광주지방기상청과 협의해 10일 도청 부지 내에 날씨공원을 조성, 자동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날씨공원의 기상관측장비를 통해 풍향, 풍속, 강우량, 기온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음으로써 풍수해 자연재

난 대비 및 사전 예측을 통한 효율적 상황관리가 기대된다.

날씨공원은 또 민원인과 각종 행사 및 교육을 위해 도청을 방문하는 방문객 및 도내 유치원생과 초등학교생에게 실시간으로 관측되는 기상장비를 견학토록 함으로써 날씨와 자연재난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는 재난안전 도우미이자 기상학습 체험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전남도청소년수련원

직영 전환 석달만에

3만5000여명 유치

수목원 연계 인기...세입 3억원

완도에 있는 전남도청소년수련원이 직영 전환 3개월만에 3만5000여명의 수련생 유치와 3억원의 세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민간에 위탁 운영하던 청소년수련원을 올 1월부터 도 산하인 완도수목원 직영체제로 전환, 지난 3월 27일 개원한 이래 차별화된 수련활동으로 이같은 성과를 올렸다.

평갈 다도해의 아름다움과 완도수목원의 난대림이 어울린 천혜의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목재 소재로 식당과 숙박시설을 보완하

고 친환경 농·수산물로 식단을 꾸리고 있다. 그 결과 수련원을 찾은 학생들과 교직원 설문 결과 90%에 가까운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전남청소년수련원은 그동안 시·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를 직접 방문해 청소년수련 시설 및 프로그램 홍보를 실시해 3만5000여명을 유치한 가운데 개선된 시설과 완도수목원과 연계한 차별화된 숲체험 프로그램,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장점들이 알려지면서 최근 예약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박형호 전남도청소년수련원장은 "지난

3개월간 거의 킬 킬 없이 수련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학교 수련활동 외에도 영어 캠프, 교회나 기업체 등의 가족단위 특성화 프로그램 유치는 물론 도시권 수학여행, 학생 간부 수련회 등 공휴일과 수련활동 비수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청소년수련원은 급증하는 이용 수요에 맞춰 7월부터 전국의 교육청과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수련활동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문의)061-554-7675, 7674 /오광복기자 kroh@

## 전북

## 국내 最古 익산 춘포역사

# 내년 건립 100주년

사진·추억담 모집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지닌 역사(驛舍)로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익산시의 춘포역사(사진)가 내년이면 건립 100주년을 맞는다.

1914년에 건립된 춘포역은 현존하는 최고(最古) 역사로 1996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뀐 뒤 2011년 5월 폐쇄됐다.

춘포역은 슬레이트를 얹은 박공지붕(양쪽으로 경사지붕)의 목조 구

조로 소규모 철도역사의 전형이란 평가를 받는다.

춘포역의 지붕 처양 네 개는 돌출되고 결친 정도가 불규칙하게 변하면서 절묘한 건축미를 보여준다. 역사·건축·철도사적 가치가 커 2005년 11월 문화재로 등록됐다.

익산문화재단은 건립 100주년을 맞는 춘포역사를 조명하고자 춘포역에 관련한 사진과 추억담을 모집한다. 재단은 춘포역에 얽힌 사연과 사진



을 모아 사진집·영상물로 제작, 춘포역사에 전시할 예정이다. 익산시도 지난해 11월 전라선 폐선 부지를 주민복지·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협약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체결했다. 시는 부근 땅을 매일 해 근대문화유산과 민경장 생태자연을 연계, 공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익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전주~남원 시외버스 요금 1400원 인하

전북 남원지역 주민들의 민원이었던 전주~남원 간 직통 시외버스 요금이 편도 기준 1400원 인하된다.

전북도는 10일 "2011년 4월 전주~광안 고속도로 개통 이후 도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과 요금인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8월20일부터는 이 구간의 시외버스 요금이 현행 6900원에서 5500원으로 내린다.

이는 전주~남원 전체 구간(60.3km)중 상항 IC~오수 IC 구간 27.9km에 대해 고속국도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운임요율을 보면 고속국도가 km당 62원으로 일반국도의 116원보다 저렴하다.

도는 하루평균 탑승인원이 7.5명으로 추정되는 것과 관련,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에게 연간 약 4억9000만원의 금전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 순창장류축제 '피너클 어워드 코리아' 2개부문 수상

순창장류축제에 대한민국의 콘텐츠대상에 이어 '피너클 어워드 코리아'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순창군은 10일 한국축제이벤트박람회(K-Festival)에서 열린 2013 피너클 어워드 코리아 시상식에서 신규프로그램 분야 '옛날 순창 전통메주 만들기'와 어린이 프로그램 '순창고추

장전국어린이 떡볶이 요리왕 선발대회' 분야에서 수상했다고 밝혔다.

피너클 어워드 코리아는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주최로 국내외의 우수한 축제를 발굴하고 국내축제의 글로벌화를 앞당길 수 있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부안군 참뽕오디 농가 가지쉴기교육

재배 매뉴얼도 보급키로

부안군이 지역 내 대표적인 특화작목인 참뽕오디의 내년 농사 준비에 착수했다.

군 농업기술센터와 오디봉 산·학·연협력단은 지난 9일부터 읍·면 재배포장 현장을 찾아 내년 농사를 위한 가지쉴기 교육에 돌입했다. (사진) 이번 교육에서는 오디 수확이 끝난 나무의 결모양을 고르게 하고 새순이 돋아나도록 해줘 병해충을 막고 고품질의 과실 생산을 늘리기 위한 전정법을 현장에서 직접 알리고 있다.

이를 통해 전정법을 통일시켜 과상 2호에 맞는 부안만의 오디 생산을 표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오디 수확 후 누에 사육기술 도입과 오디 유효성분 추출, 체험 프로그램 개발, 가공산업화 등 연구사업을 병행해 참뽕오디를 이용한 6차산업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병산업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드러났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안지역에 적합한 재배 매뉴얼 보급에 집중하기로 했다.

한편 오디봉 산·학·연협력단은 전문가 30명을 선발, 분과별 연구활동을 벌이고 현장 중심으로 매니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부안=정재용기자 jjy0681@

## 단신

### 전주시 한옥마을 '여름밤 여행산책' 투어 운영

전주시가 방화와 휴가를 맞아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숙박객 등을 대상으로 12일부터 8월25일까지 한옥마을 야간투어 프로그램인 '여름밤 여행산책'을 운영한다.

이 야간투어는 12일부터 매일 저녁 6시50분 경기전을 출발,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1시간가량 한옥마을이

곳저곳을 돌아본다. 코스는 경기전, 전동성당, 오목대, 600년된 은행나무 서식지 등으로 연결되며 오목대에서 한옥마을 일몰 풍경과 야경을 감상하고 실계천이 흐르는 은행로의 시원한 밤 풍경도 볼 수 있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정읍시 서울 장학숙 건립기금 홍보·기탁행사

신대인읍사무소는 10일 이한옥(사)정읍시예향운동본부장과 49개 마을대표 및 기관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정읍시 서울 장학숙 건립기금 1시

민 1개좌 갖기 운동 홍보와 더불어 기탁행사를 가졌다. 이날 정읍시예향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린 기탁행사에서 신대인 신대인(사)정읍시예향운동본부에서 총 410만원, 신대인노인회, 화호청년회 등 10개 기관단체에서 304만원을 기탁하는 등 31개 마을 및 기관단체에서 총 714만원의 장학숙 건립기금을(사)정읍시예향운동본부에 기탁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남원시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박차

남원의 허브산업을 기반으로 화장품 산업과 연계해 1차산업(원료생산), 2차산업(원료가공, 제품생산), 6차산업(체험, 힐링·치유,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남원시는 10일 "이환주 시장이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착수 2년을 맞아 자문위원과 화장품 업체

관계자 20여명을 초청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시는 2018년까지 20개 업체 유치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순죽화장품, 서정메디언스, 림포디아, 에이지락 등 4개 업체와 화장품집적화단지 입주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 부안 국도 30호선 '드라이브코스 베스트 10' 선정

부안지역 해변을 중심으로 각종 관광명소를 잇는 중핵 도로인 국도 30호선이 환상의 드라이브코스로 선정됐다.

10일 부안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 여름 피서철을 맞아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볼 수 있는 환상의 '국도 드라이브코스 베스트 10'으로 국도

30호선(진서 곰소리~변산 대항리)을 추천했다.

산과 바다를 느낄 수 있는 도로로 소개된 국도 30호선 구간은 진서 곰소리에서 변산 대항리에 이르는 34.1km로, 주변에 '내소사', '채석강', '변산해수욕장' 등이 자리하고 있다. /부안=정재용기자 jjy0681@